

# “피겨 여왕 그녀는 아름다웠다”

# 이규혁 ‘금빛 질주’

## ■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 김연아(18·군포 수리고)를 초청하기 위한 ‘돌발 영입전’이 벌써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14일 “올해 그랑프리 시리즈를 치르기에 앞서 미국과 중국 등 각 개최지에서 김연아를 초청하려고 많은 신경전을 펼쳤던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벌써 내년 대회에도 김연아를 또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6차례 열리는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는 각 선수의 세계랭킹 순서에 따라 시드를 부여해 상위 랭크 선수들이 한 대회에 겹쳐서 출전하지 않도록 ISU가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 선수가 최대 두 차례 그랑프리 대회밖에 나서지 못하다 보니 각 개최지로선 대회 흥행을 위해서라도 유명 선수를 초청하려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밤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 시니어 여자 싱글 시상식에서 2위를 차지한 ‘피겨 여왕’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김연아에 가장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개최지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그랑프리 대회에 김연아를 초청하면서 대회 수준도 끌어올리는 효과와 더불어 관중몰이에도 성공했다. 더불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많은 국내 팬들의 원정 응원도 이끌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 때문에 중국빙상연맹은 지난해 김연아가 ‘컵 오브 차이나’에서 우승을 하자 내년에도 꼭 초청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IB스포츠 측에 밝혔을 정도다.

한편 김연아는 2008~2009 SBS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 달성에 실패하면서 금메달의 영광을 ‘동갑내기’ 아사다 마오(일본)에게 넘겨줬다.

김연아는 지난 13일 밤 고양시 덕양구 고양아울름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0.41점을 받으면서 전날 쇼트프로그램(65.94점)을 합쳐 총점 186.35점으로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188.55점)에 2.2점 차로 뒤져 아쉬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김연아는 현역에서 은퇴한 이리나 슬러츠카야(러시아·1999~2001년)에 이어 여자 싱글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그랑



김연아 대회 3연패 좌절 불구 벌써부터 내년 대회 초청 경쟁

‘피겨 여왕’ 김연아가 14일 오후 고양시 고양아울름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갈라쇼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 파이널 3연패를 달성하려던 꿈이 무산됐다.

반면 아사다는 지난 2005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그랑프리 파이널 정상에 복귀했다. 김연아는 14일 오후 2시부터 여자 싱글 준우승자 자격으로 갈라쇼 연기를 펼쳤다.

감기로 인한 체력 저하 때문에 두 차례 점프 실수가 이어지면서 김연아의 메달 색깔이 바뀌고 말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아사다에게 0.56점 앞섰던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했던 트리플 러츠를 또 한 번 싱글로 뒤고 생각지도 못했던 트리플 살코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아사다에게 역전의 발미를 제공했다.

이에 반해 아사다는 트리플 플립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도하려다 한 차례 넘어졌지만 두 차례 트리플 악셀에서 모두 가산점을 받는 행운이 겹치면서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6명의 연기자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연아는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1.4점 가산점을 받으면서 시원하게 연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점프를 안전한 더블 악셀로 처리한 김연아는 트리플 러츠-더블 토투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완벽하게 뛰고 플라이잉 시스핀과 더블 악셀-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깨끗하게 소화해 우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우승 전선에 먹구름이 낀 것은 6

번째 과제였던 단독 트리플 러츠 점프부터다. 감기에 따른 체력저하로 힘에 부쳤던 김연아는 전날처럼 트리플 러츠를 싱글로 처리하고 했다.

스파이럴 시스핀에서 레벨4를 받으면서 마지막 기운을 냈던 김연아는 결국 트리플 살코에서 넘어지고 나머지 스핀과 스텝 연기도 레벨 3에 그치면서 이번 시즌 최저 점수로 우승의 기회를 놓쳤다.

지난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안도 미키(23·일본)는 ‘필살기’인 퀘드러플 살코에 도전했지만 3회전에 그친 것을 포함해 4개의 점프 시도가 모두 다운그레이드되는 어려움 속에 총점 158.25점으로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남 500m 디비전A 1위 빙속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말쟁’ 이규혁(서울시청)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규혁은 14일 오후 일본 나가노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4초92로 결승선을 통과, 중국의 루오훈(34초95)을 0.03초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 월드컵 4차 대회 1,000m 우승에 이어 자신의 시즌 두 번째 금메달.

이규혁은 이어 열린 남자 1,000m 디비전 A에도 출전해 1분09초16초를 기록, 사니 데이비스(미국·1분08초92)에 0.24초 차로 선두를 내주면서 은메달을 따내는 역주를 펼쳤다.

여자부에서는 이상화(한국체대)가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8초72로 유정(중국·38초65)에 0.09초 뒤지는 2위를 기록, 전날 1차 레이스에 이어 이를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이규혁이 14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1,000m경기에서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대-정재성 ‘환상의 복식조’

## 중국·홍콩 오픈 이어 코리아 챌린지도 우승 권희숙 여자단식 첫금

정재성-이용대(이상 삼성전기) 조가 2008 여수 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정상에 올랐다.

정재성-이용대 조는 14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복식 결승에서 조건우(삼성전기)-유연성(원광대) 조를 2-0(21-16 26-24)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정재성-이용대 조는 11월 중국 오픈과 홍콩오픈에 이어 최근 3개 대회에서 내리 우승했다. 남자단식에서는 올해 아시아 선수권대회 챔피언 박성환(강남구청)이 이철호(한국체대)를 2-0(21-14 21-1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여자단식에서는 권희숙(KT&G)이 배연주(성지여고)를 2-0(21-17 21-9)으로 완파하고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하정은(대교)-김민정(군산대) 조가 김미영-장애(이상 인천대) 조를 2-0(21-15 21-14)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 삼성화재 안젤코·장병철 35점 합작...3위 복귀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던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LIG손해보험을 꺾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화재는 14일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8~2009 V-리그 LIG손해보험과 원정경기에서 35점을 합작한 안젤코 추크(22점)와 장병철(13점)의 활약을 앞세워 세트 스코어 3-0(29-27 25-20 25-19) 승리를 거뒀다.

1라운드에서 2승3패로 4위까지 추락했던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에 이어 LIG손해보험을 잇달아 격파하면서 4승3패로 3위로 올라섰다. 삼성화재는 이날 경기에서 23득점의 맹공을 퍼붓은 LIG손해보험의 장신 공격수(215cm) 카이의 기세 눌러 1세트에서 13-17로 끌려가며 힘든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장병철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19-19로 동점

을 만든 삼성화재는 두스까지 가는 점점끝에 안젤코의 연속 득점으로 29-27로 첫 세트를 쟁했다.

힘들게 1세트를 따낸 삼성화재는 안젤코의 스파이크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2세트를 25-20으로 마무리한 뒤, 3세트에서 25-19로 여유있게 앞서며 LIG손해보험에 3-0 완승을 거두었다.

앞선 4경기 총 득점이 11점에 그쳤던 장병철은 이날 1세트에서 87.5%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보이는 등 13득점을 올리며 위기의 팀을 구했다.

천안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연승 행진이 이어졌다. 현대캐피탈은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협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나란히 13득점을 올린 앤더스와 임시형의 활약에 힘입어 신협상무를 3-0(25-18 28-26 25-15)으로 완파하며 5연승 행진을 펼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